

江戸語에 있어서의 가능동사에 관한 고찰

- 江戸噺本 · 江戸歌舞伎 · 黄表紙를 대상으로 -

金 鎔 均*

(e-mail: kygyun@cau.ac.kr)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expressions of possibility, especially, modal verbs denoting possibility with attention to 30 kinds of authentic materials of Edo language(Edohanashibon · Edokabuki · Kibyoshi) in the late modern times of Anei ~ Bunka (1772 ~ 1817) in comparison to Edosharebon.

Analyzing modal verbs shown in Edohanashibon · Edokabuki · Kibyoshi, this study investigat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ause of the linguistic changes, focusing on the difference in slowness and quickness. As a result, several characteristic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re exist the difference in slowness and quickness of change even within the materials of Edohanashibon · Edokabuki · Kibyoshi. They can be arranged in the following sequence: Edosharebon > Edohanashibon > Kibyoshi > Edokabuki.
- (2) Colloquial sentences are likely to change more quickly than literary ones from a viewpoint of stylistics.
- (3) The sequence of verbal conjugation types is as follows: Mizemkei > Renyōkei > Shuōshi · Rentaikei > Izenkei.
- (4) Considering the number of syllables, monosyllabic or disyllabic verbs change earlier than multisyllabic verbs do.
- (5) Simple verbs change earlier than compound verbs do.
- (6) Negative expressions change earlier than affirmative ones do.

This study reveals that modal verbs of possibility experienced the linguistic

*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학전공 교수, 일본어학

changes of quickness and slowness in stylistics, verbal conjugations, the number of syllables, simple verbs and compound verbs, affirmative and negative expressions, etc. shown in the data of Edo language, such as Edohanashibon · Edokabuki · Kibyoshi. Additionally, the above-mentioned (2),(4), (5), and (6) coincide in Edosharebon, while (1) and (3) differ from Edosharebon.

key words : Edohanashibon, Kibyoshi, Edokabuki,
Edosharebon, expression of possibility, modal verbs of possibility

1. 서론

언어 발달사를 보면 그 변용은 실로 다양하다. 특히 일본어는 대부분의 영역 즉 어휘, 음운, 표기, 문자, 문체, 문법, 방언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용을 보이면서 발달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변용의 격동기라 할 수 있는 江戸 후기 특히 安永~文化期(1772~1817)의 江戸語자료를 대상으로 당시 江戸語에 나타나는 가능표현,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 일본어에서도 여전히 확장성을 보이며 발달, 진화하는 문법변화의 한 영역인 가능동사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고자 한다.

가능동사란 이론의 여지없이 동사 내부 간의 변용으로 의미 영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형태적으로도 변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4단(5단)활용동사(「行く」「負う」「書く」「聞く」「食う」「乗る」 등)에서 하단활용동사(「行ける」「負える」「書ける」「聞ける」「食える」「乗れる」 등)로 활용 형식 자체가 변용된 것을 지칭한다.

이처럼 가능동사가 과거 즉 江戸시대에는 물론, 현대 일본어에 이르러서도 주목을 끄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단순히 의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형태적인 영역에서도 변용을 이루어 미래에 있어서 언어변용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과 현대 일본어에서도 확장성을 보이면서 여전히 다용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자의 경우 오늘날 〱拔言葉의 점진적인 확장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현대 일본어에서 다용됨은 물론 〱拔言葉의 확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江戸 이후 가능표현의 주류로 진입하려 하는 가능동사에 착목하여, 江戸語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당시 江戸語자료(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江戸語자료(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를 대상으로 한 가능동사에 관한 연구는 예상보다 그다지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다. 江戸噺本(『鹿の子餅』(1772) 『鯛の味噌津』(1779))과 江戸歌舞伎(『お染久松色読販』(1813))를 대상으로 한 靑岡昭夫의 연구)와 江戸噺本(『鹿の子餅』 『聞上手』(1773) 『鯛の味噌津』)를 대상으로 한 靑木博史의 연구)가 눈에 띄는 정도이다. 그런데 전자와 후자 모두 체계적인 연구와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양자 모두 한정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몇몇 용례의 출현 보고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시 江戸語자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黄表紙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발달 과정 속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경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용례 발굴을 통하여 성립시기가 비슷하고, 또한 당시 江戸語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만큼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江戸洒落

1) 靑岡昭夫(1967) 「江戸語・東京語における可能表現の変遷について」 『言語と文芸』 54, p.59

2) 靑木博史(1996) 「可能動詞の成立について」 『語文研究』 81, pp.53-54

本에 나타나는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경향① 江戸洒落本에 있어서 가능동사는 上方洒落本보다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보인다 ② 활용형에서 보면 미연형, 종자·연체형, 연용형, 이연형의 순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③ 부정표현의 변화 속도는 긍정표현보다 빠르다 ④ 음절수에서 보면 소음절 동사의 변화 속도는 다음절 동사보다 빠르다 ⑤ 단순동사의 변화 속도는 복합동사보다 빠르다 ⑥ 문체적인 면에서 보면 회화문의 변화 속도는 지문보다 빠르다.)³⁾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한다.

위와 같은 고찰은 종래 연구가 미진하였던 江戸語자료(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전술한 당시 유력한 자료인 江戸洒落本에 나타나는 경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동일한 江戸語자료라 할지라도 각 자료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고찰 결과가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동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2.1 연구 자료

연구 자료는 가능표현이 등장하는 安永~文化期の 江戸語자료 즉 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의 30종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하,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기로 한다.

- | | | |
|---------------------|---------------------|---------------------|
| [1]『楽牽頭』(1772) | [2]『鹿の子餅』(1772) | [3]『聞上手』(1773) |
| [4]『御撰勸進帳』(1773) | [5]『金々先生栄花夢』(1775) | [6]『高漫齐行脚日記』(1776) |
| [7]『其返報怪談』(1776) | [8]『桃太郎後日噺』(1777) | [9]『親敵討腹靴』(1777) |
| [10]『鯛の味噌津』(1779) | [11]『見徳一炊夢』(1781) | [12]『大違宝舟』(1781) |
| [13]『御存商売物』(1782) | [14]『啞多雁取帳』(1783) | [15]『草双紙年代記』(1783) |
| [16]『従夫以来記』(1784) | [17]『太平記万八講釈』(1784) | [18]『莫切自根金生木』(1785) |
| [19]『江戸生艶気樺焼』(1785) | [20]『江戸春一夜千両』(1786) | [21]『色男其所此処』(1787) |
| [22]『文武二道万石通』(1788) | [23]『鸚鵡返文武二道』(1789) | [24]『遊妓寔卵角文字』(1790) |
| [25]『鼻下長物語』(1792) | [26]『敵討義女英』(1795) | [27]『無事志有意』(1798) |
| [28]『名歌徳三舛玉垣』(1801) | [29]『買飴紙胤野弄話』(1801) | [30]『お染久松色読販』(1813) |

먼저 성립(간행)시기별로 보면 安永期(1772~1780) 자료가 [1]~[10]의 10종, 天明期(1781~1788) 자료가 [11]~[22]의 12종, 寛政期(1789~1800) 자료가 [23]~[27]의

3) 金銘均(2014b) 「江戸洒落本에 나타나는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日本文化學報』 63, 韓國日本文學會, pp.58-66

5종, 享和期(1801~1803) 자료가 [28]~[29]의 2종, 文化期(1804~1817) 자료가 [30]의 1종이다. 그리고 자료별로 보면 江戸噺本이 5종, 江戸歌舞伎가 3종, 黄表紙가 22종이다. 이 중에서 江戸噺本은 『噺本大系9』([1])·『岩波日本古典文学大系100』([2][3][10][27]), 江戸歌舞伎는 『岩波新日本古典文学大系96』([4])·『岩波日本古典文学大系54』([28][30]), 黄表紙는 『岩波日本古典文学大系59』([5][6][11][13][18][19][22][26])·『岩波新日本古典文学大系83』([7][12][15][17][21][29])·『小学館日本古典文学全集46』([9][24])·『小学館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79』([8][14][16][20][23][25])를 底本으로 사용하였다.

2.2 연구 방법

우선 연구는 江戸語에 보이는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경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역점을 두고, 거기에 따르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江戸語자료(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를 대상으로 당시에 쓰인 주된 가능표현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첫째, 가능동사(「行ける」, 「負える」, 「書ける」, 「聞ける」, 「食える」, 「乗れる」 등)⁴⁾

둘째, 4단활용동사 + 「れる」형

셋째, 4단활용동사 + 「ことができる」형

넷째, 4단활용동사 + 「得る」형

다만, 본 연구에서는 첫째에서 넷째까지의 기준에서 벗어난 4단활용동사 이외의 가능표현의 일종인 동사 + 「れる」형과 동사 + 「ことができる」형, 그리고 동사 + 「得る」형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는 가능동사가 기본적으로는 4단활용동사에서 파생되어 성립한 것으로 그 발달 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4단활용동사 내부에 국한하여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江戸語자료(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에 보이는 가능표현의 출현 실태와,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가능표현 중에서 과연 가능동사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가능동사는 다시 각 자료별 다시 말해 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로 나누어 문체(지문과 회화문)와 활용형(미연형, 연용형, 종지·연체형, 이연형), 그리고 음절수(소음절 동사와 다음절 동사)로 분류하여 분석을 행하기로 한다. 나아가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긍정표현과 부정표현으로 나누어 분석을 병행함과 동시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江戸語자료(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의 분석 결과와 당시의 유력한 江戸語자료라 할 수 있는 江戸洒落本の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상이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4) 본 연구에서 자료로 사용한 『お染久松色読販』에는 「負ひ(い)ねへ」(190下12, 191上3, 223下17)가 3례 등장하는데, 이 용례는 前田勇(1979)가 『江戸語の辞典』(講談社, p.16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負へ(え)ない」의 사투리 발음으로 판단되기에 여기에서는 가능동사로 취급하기로 한다.

3. 江戸語에 있어서의 가능표현의 출현 실태 및 분석 결과

江戸語에 보이는 가능동사의 구체적인 발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江戸語자료(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 즉 자료[1]~[30]의 30종에 나타나는 가능표현의 출현 실태를 각 자료별로 지문과 회화문, 활용형과 음절수, 그리고 단순동사와 복합동사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1>로 나타내고, 나아가 가능표현 중에서 가능동사가 점유하는 사용률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2>로 나타내 보기로 한다.

<표1> 江戸語자료에 있어서의 가능표현의 출현 실태

자료	가능표현		가능동사			「れる」형	「ことが できる」형	「得」형
			3음절	4음절	5음절			
安	[1] 楽牽頭 (1772)	미연형			<◇>	2(1)		
		연용형						
		중자·연체형						
		이연형						
	[2] 鹿の子餅 (1772)	미연형	2(1)			3(2)[1]		
		연용형	2					
		중자·연체형						
		이연형						
	[3] 聞上手 (1773)	미연형				1		1
		연용형	1					
		중자·연체형						
		이연형						
[4] 御撰勸進帳 (1773)	미연형	7			22<2>[2]			
	연용형							
	중자·연체형							
	이연형							
[5] 金々先生栄花夢 (1775)	미연형							
	연용형	1						
	중자·연체형							
	이연형							
[6] 高漫齋行脚日記 (1776)	미연형				1			
	연용형	1						
	중자·연체형							
	이연형							
[7] 其返報怪談 (1776)	미연형				1			
	연용형							
	중자·연체형							
	이연형							
[8] 桃太郎後日噺 (1777)	미연형				3(1)		(1)	
	연용형							
	중자·연체형							
	이연형							
[9] 親敵討腹靴 (1777)	미연형							
	연용형	1						
	중자·연체형							
	이연형							

寬 政	[23] 鸚鵡返文武二道 (1789)	미연형				1(1)		
		연용형	㉞					
		종자·연체형	㉞					
	[24] 遊妓寔卯角文字 (1790)	미연형	2			(1)		
		연용형						
		종자·연체형						
	[25] 鼻下長物語 (1792)	미연형				5		
		연용형						
		종자·연체형						
	[26] 敵討義女英 (1795)	미연형				2		
		연용형						
		종자·연체형						
[27] 無事志有意 (1798)	미연형	2			4			
	연용형	1						
	종자·연체형	2						
	이연형							
享 和	[28] 名歌徳三辨玉垣 (1801)	미연형				17<1>		7
		연용형	1					
		종자·연체형		1				
	[29] 買飴紙風野弄話 (1801)	미연형				2		
연용형			2					
종자·연체형			1					
文化	[30] お染久松色読販 (1813)	미연형	4(1)			23	1	
		연용형		1				
		종자·연체형	1					
		이연형						

* 숫자는 단순동사의 회화문, () 안의 숫자는 단순동사의 지문, < > 안의 숫자는 복합동사의 회화문, [] 안의 숫자는 복합동사의 지문의 용례수를 가리킨다.

<표2> 江戸語자료에 있어서의 가능동사의 사용률(%)

자료	가능표현	가능동사	「-れる」형	「-ことができ る」형	「-得る」형
[A]江戸噺本 5종 (1772~1798)		13 (44.8)	15 (51.7)	0 (0.0)	1 (3.5)
[B]江戸歌舞伎 3종 (1773~1813)		16 (17.6)	67 (73.6)	1 (1.1)	7 (7.7)
[C]黄表紙 22종 (1775~1801)		18 (29.0)	43 (69.4)	0 (0.0)	1 (1.6)
합계		47 (25.8)	125 (68.7)	1 (0.5)	9 (5.0)

또한 본 연구에서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가능동사의 구체적인 용례를 출현 빈도수에 입각하여 별개어수를 기준으로 모두 들어보면 다음의 <표3>과 같이 된다.

<표3> 江戸語자료에 있어서의 가능동사의 출현 용례(별개어수)

云える(15) 持てる(5) 読める(5) 負える(4) 呑み込める(3) 取れる(2) 呑める(2) 乗れる (2) 行ける(1) 動かせる(1) 買える(1) 帰れる(1) 切れる(1) 食える(1) 解せる(1) 下がる (1) 済める(1)
--

* () 안의 숫자는 연어수를 가리킨다.

우선 관찰되는 것은 <표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체와 활용형, 음절수,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간에 따라 여러 형태로 遲速 차이를 보이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표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능동사의 사용률이 그 외의 가능표현, 다시 말해 「-れる」형보다는 낮게, 「-ことができる」형 및 「-得る」형보다는 높게 나타난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할 대목이다. 나아가 <표3>을 통하여 별개어수와 연어수의 실제 파악이 가능하고, 음절수 그리고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간에 따른 遲速 차이가 엇보인다는 점도 주목된다.

4. 江戸語에 있어서의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경향

전술한 <표1>의 江戸語자료(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 30종을 통하여 江戸語에 있어서 가능표현의 출현 실태, 그리고 <표2>의 가능동사의 사용률의 분석 결과와 <표3>의 가능동사의 구체적인 출현 용례, 나아가 江戸語자료(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의 전체적인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江戸語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확인되는, 이른바 특징적인 전체적인 경향으로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 ① 江戸語자료의 내부 간에 따른 遲速 차이가 보여 江戸洒落本> 江戸噺本> 黄表紙> 江戸歌舞伎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② 문체적인 면에서 보면 회화문> 지문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③ 활용형에서 보면 미연형> 연용형> 종지·연체형> 이연형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④ 음절수에서 보면 소음절 동사> 다음절 동사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⑤ 단순동사> 복합동사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⑥ 부정표현> 긍정표현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향①은 비슷한 시기의 동일한 江戸語자료의 내부 간에 따른 遲速 차이가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江戸語자료 즉 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이 비슷한 시기의 동일한 江戸語자료인 江戸洒落本보다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江戸語자료 간의 비교를 위하여 분석 결과를 <표4>로 나타내 보기로 한다.

<표4> 江戸語자료(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와 江戸洒落本에 있어서의
가능동사의 사용률(%)

자료 \ 가능표현	가능동사	「-れる」형	「-ことができる」형	「-得る」형
[A]江戸噺本 5종 (1772~1798)	13 (44.8)	15 (51.7)	0 (0.0)	1 (3.5)
[B]江戸歌舞伎 3종 (1773~1813)	16 (17.6)	67 (73.6)	1 (1.1)	7 (7.7)
[C]黄表紙 22종 (1775~1801)	18 (29.0)	43 (69.4)	0 (0.0)	1 (1.6)
[D]江戸洒落本 37종 ⁵⁾ (1777~1807)	121 (53.5)	100 (44.3)	0 (0.0)	5 (2.2)

먼저 <표4>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듯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료[A]~[C]와 [D] 간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능표현 중에서 자료[A]~[C]는 「-れる」형이 가능동사보다 사용률이 높은 데 비하여, [D]는 가능동사가 「-れる」형보다 사용률이 높게 나타나 특징적인 사실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료[A]~[C]는 사용률이 공통적으로 「-れる」형> 가능동사> 「-得る」형> 「-ことができる」형의 순으로 보이는 데 비하여, [D]는 가능동사> 「-れる」형> 「-得る」형> 「-ことができる」형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경향①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능동사의 발달은 江戸語자료 내부 간에 따라 遲速 차이가 인정되는 가운데, 江戸洒落本> 江戸噺本> 黄表紙> 江戸歌舞伎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A]~[D]의 가능표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사실은 「-ことができる」형 및 「-得る」형이 가능동사와 「-れる」형보다 그 사용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여기에서 무엇보다 눈여겨 보아야 할 사실은 江戸語자료(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가 동일한 江戸語자료이자 비슷한 시기의 자료인 江戸洒落本の 발달 양상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江戸洒落本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은 53.5%를 보여 또 다른 江戸語자료인 江戸噺本(44.8%), 江戸歌舞伎(17.6%), 黄表紙(29.0%) 등의 사용률보다 진전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능동사의 발달 고찰 시 간과할 수 없는 사실로 이해된다. 동일한 자료 혹은 비슷한 시기의 자료라 할지라도 발달 과정에 있어서 그 차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럼 이처럼 江戸語자료 내부 즉 江戸語자료(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와 江戸洒落本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보이는 원인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 江戸洒落本이 비슷한 시기의 동일한 江戸語자료인 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 등보다 가능동사의 발달에 있어서 진일보한 양상을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다름 아닌 江

5) 金銘均(2014b), 前掲書(3), p.57에서 분석한 明和~天保期(1764~1843)의 江戸洒落本 50종 중에서 江戸語자료(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성립시기가 비슷한 安永~文化期の 자료 37종만을 대상으로 재분석한 결과이다.

江戸洒落本の 자료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자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 江戸洒落本이 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 등보다 구두어적인 성격이 강한 데 기인하는 것⁶⁾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종래 江戸洒落本은 구두어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높고, 또한 江戸語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자료로 인식되어 왔는데⁷⁾, 이는 역시 위와 같은 사실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江戸語자료(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에는 가능동사와 가능표현 「-れる」형 이외에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ことができる」형과 「-得る」형이 보이는데, 그 용례문을 모두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 とても浄瑠璃語には成得まいし、何の役にもたゝぬ。(聞上手、407-9)
- (2) 桃太郎、鬼が嶋へ渡り、宝物を取り得て、故郷へ帰る。(桃太郎後日噺、30-2)
- (3) 探し求るとはいへども、今におゐて取得ぬ血汐。(名歌徳三舛玉垣、49下12)
- (4) 今の一品取り得たる心。(上同、61上5)
- (5) 直ちに取得てお目にかけませふ。(上同、117下16)
- (6) 定めし取得ぬことはござりますまい。(上同、123下12)
- (7) 詠み得ん者があるならば小野の誉、(上同、124上7)
- (8) 雨乞の歌読得たる賤の女を、(上同、156上16)
- (9) こりゃアお前さき売って置やしからね、外へ売る事出来やせねへよ。(お染久松色讀版、190下8)

위의 (1)(2)(3)(4)(5)(6)(7)(8)은 가능표현의 일종인 「-得る」형의 용례문이고, (9)는 「ことができる」형의 용례문이다. 다만, 위와 같은 표현이 가능동사와 가능표현 「-れる」형에 비하여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까지는 여전히 가능표현인 「ことができる」형과 「-得る」형은 미발달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문체적인 면에서 보이는 경향^②, 다시 말해 회화문의 변화 속도가 지문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더 분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술한 <표 1>을 근거로 지문과 회화문 간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 분석 결과를 <표 5>로 나타내 보기로 한다.

6) 실제로 金鎔均(2009)의 「江戸語 命令表現「なされ」の語尾變化에 관한 考察」(『日語日文學』 43, 大韓日語日文學會, p.13)에 의하면 命令表現「なされ」에서 「なさい」로의 변화 시, 구두어적인 성격이 강한 江戸洒落本이 가장 앞선 가운데 江戸噺本, 黄表紙가 뒤를 잇는다고 지적된다.

7) 小松寿雄(1985) 『江戸時代の国語·江戸語』、東京堂出版、pp.119-121

<표5> 江戸語자료에 있어서의 가능동사의 문체별 사용률(%)

자료 \ 문체	지문	회화문
[A]江戸噺本 5종 (1772~1798)	1 (7.7)	12 (92.3)
[B]江戸歌舞伎 3종 (1773~1813)	1 (6.2)	15 (93.8)
[C]黄表紙 22종 (1775~1801)	6 (33.3)	12 (66.7)
합계	8 (17.0)	39 (83.0)

먼저 <표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회화문의 가능동사 사용률(83.0%)이 지문의 가능동사 사용률(17.0%)보다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자료[A](92.3%), [B](93.8%), [C](66.7%)의 회화문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은 자료[A](7.7%), [B](6.2%), [C](33.3%)의 지문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보다 역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경향②는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가능동사는 역시 구두어 즉 회화문에서 먼저 발달한 것으로 지문보다 그 변화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경향②는 江戸洒落本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처럼 지문과 회화문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후자가 아닌 전자의 문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된 언어보다도 더욱 규범적인 언어를 사용하려는 의식이 지문에 강하게 반영된 결과에 기인하는 것⁸⁾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보이는 회화문의 가능동사와, 상대적으로 더딘 발달 양상을 보이는 지문의 가능동사 용례문을 몇 개 들어보기로 한다.

- (10) コリヤどふもいへぬ (鹿の子餅、356-4)
- (11) だんなのおすがたどふもいへませぬ (金々先生栄花夢、40-14)
- (12) 昼中にゃア洗湯へも行けねへ。(お染久松色読販、210上7)
- (13) 手のひらへのせて見る風情、どふもいへず。(鹿の子餅、356-9)
- (14) 三芝居あふむ石なぞをよび、一ぱひにもてる。(御存商売物、85-15)

8) 金銘均(2004)『江戸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에 관한 考察 -(さ)する와 (ら)るる 간의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日本文化學報』22, 韓國日本文化學會, p.52

(15) ばくちを打つと身が持てぬといふことを聞いて、(莫切自根金生木、123-3)

위의 (10)(11)(12)는 회화문의 가능동사 용례문이고, (13)(14)(15)는 지문의 가능동사 용례문이다.

계속해서 경향③, 다시 말해 활용형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활용형 즉 미연형 및 연용형과 중지·연체형 및 이연형 간에 따른 가능동사의 사용률 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술한 <표1>을 근거로 한 분석 결과를 <표6>으로 나타내 보기로 한다.

<표6> 江戸語자료에 있어서의 가능동사의 활용형별 사용률(%)

활용형 자료	미연형	연용형	중지·연체형	이연형
[A]江戸噺本 5종 (1772~1798)	7 (53.8)	4 (30.8)	2 (15.4)	0 (0.0)
[B]江戸歌舞伎 3종 (1773~1813)	12 (75.0)	2 (12.5)	2 (12.5)	0 (0.0)
[C]黄表紙 22종 (1775~1801)	6 (33.3)	8 (44.5)	4 (22.2)	0 (0.0)
합계	25 (53.2)	14 (29.8)	8 (17.0)	0 (0.0)

우선 <표6>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연형(53.2%)> 연용형(29.8%)> 중지·연체형(17.0%)> 이연형(0.0%)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료[A]의 경우 미연형(53.8%)> 연용형(30.8%)> 중지·연체형(15.4%)> 이연형(0.0%)의 순으로, [B]의 경우 미연형(75.0%)> 연용형(12.5%)=중지·연체형(12.5%)> 이연형(0.0%)의 순으로, [C]의 경우는 연용형(44.5%)> 미연형(33.3%)> 중지·연체형(22.2%)> 이연형(0.0%)의 순으로 나타난다. 내부적으로 보면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보이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가능동사의 발달은 역시 미연형> 연용형> 중지·연체형> 이연형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미연형이 그 발달에 있어서 다른 제 활용형보다 앞선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가능동사가 출현하기 시작하는 室町期(1333~1603)라는 시대적인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찍이 室町期에 출현한 미연형의 가능동사 용법이 고착화되어 이후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 데 기인하는 것⁹⁾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9) 金銘均(2013) 「三馬의 滑稽本에 나타나는 가능동사에 관한 고찰」 『比較日本學』 29, 漢陽大學校 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p.274

특히 여기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위와 같은 경향이 미연형 > 종지·연체형 > 연용형 > 이연형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江戸洒落本과 다르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江戸洒落本の 경우는 종지·연체형이 연용형보다 앞선 데 비하여, 江戸語자료(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의 경우는 연용형이 오히려 종지·연체형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江戸語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발달 고찰 시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연형이 그 발달에 있어서 가장 앞선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겠지만, 연용형과 종지·연체형 간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一九의 滑稽本『東海道中膝栗毛』를 고찰한 결과 연용형과 종지·연체형 간에 따른 遲速 차이가 관측되지 않았다¹⁰⁾는 점도 양 활용형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의 검토 시 고려의 대상이다.

그럼 이와 같은 원인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현재로서 하나는 자료에 따라 우연히 나타나는 결과일 것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실제로 연용형이 종지·연체형보다 앞선다는 점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좀 더 자료를 보완하고 통시적인 관점에서 江戸전기를 고찰한 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참고로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보이는 미연형의 가능동사와, 상대적으로 더딘 양상을 보이는 연용형과 종지·연체형의 가능동사 용례문을 몇 개 들어보기로 한다.

- (16) どふも言^いゑぬ言^いゑぬ。(御撰勸進帳、351-1)
- (17) もし取^とれぬ時^{とき}は、がんといふ話^{はなし}だ (腔多雁取帳、52-6)
- (18) どうも、みなさま、いへませぬ。(高漫齋行脚日記、52-4)
- (19) まことにそれぞれのおもひつき。どふもどふもいへたものではない (無事志有意、455-9)
- (20) 外^{ほか}になんぞ呑^{のめ}るもの^だを出^だしてくれ (上同、454-15)
- (21) 灸^すを据^すへても生き^いねへ時は、猶更こつちも言^いへるよ。(お染久松色読販、238下17)

위의 (16)(17)은 미연형의 가능동사 용례문, (18)(19)는 연용형의 가능동사 용례문, (20)(21)은 종지·연체형의 가능동사 용례문이다.

이어서 소음절 동사의 변화 속도가 다음절 동사보다 빠르다는 경향④를 알아보기 위해서 음절수에 따른 가능동사의 사용을 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술한 <표1>과 <표3>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를 <표7>로 나타내 보기로 한다.

10) 金銘均(2015) 「一九の『東海道中膝栗毛』에 보이는 가능동사에 관한 고찰 -三馬의 滑稽本과 비교를 중심으로 -」 『日本文化學報』 66, 韓國日本文化學會, pp.38-39

<표7> 江戸語자료에 있어서의 가능동사의 음절수별 사용률(%)

자료 \ 음절수	3음절	4음절	5음절
[A]江戸噺本 5종 (1772~1798)	12 (92.3)	0 (0.0)	1 (7.7)
[B]江戸歌舞伎 3종 (1773~1813)	14 (87.5)	2 (12.5)	0 (0.0)
[C]黄表紙 22종 (1775~1801)	15 (83.3)	0 (0.0)	3 (16.7)
합계	41 (87.2)	2 (4.3)	4 (8.5)

먼저 <표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음절인 3음절 가능동사의 사용률(87.2%)은 다음절인 4음절 가능동사(4.3%)와 5음절 가능동사(8.5%)의 사용률에 비하여 단연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살펴보아도 확인된다. 예를 들면 자료[A]의 경우 소음절인 3음절(92.3%), 다음절인 5음절(7.7%), 4음절(0.0%)의 순으로, [B]의 경우 소음절인 3음절(87.5%), 다음절인 4음절(12.5%), 5음절(0.0%)의 순으로, [C]의 경우는 소음절인 3음절(83.3%), 다음절인 5음절(16.7%), 4음절(0.0%)의 순으로 보여 전체적인 상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경향 즉 소음절인 3음절 가능동사에 있어서 진일보한 발달 양상은 전술한 <표3>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연어수를 기준으로 볼 때 2례 이상 보이는 상위 단어 속에서 「呑み込める」(3)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云える」(15) 「持てる」(5) 「読める」(5) 「負える」(4) 「取れる」(2) 「呑める」(2) 「乗れる」(2) 등의 3음절 가능동사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경향④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江戸洒落本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처럼 소음절 동사와 다음절 동사 간에 있어서 보이는 遲速 차이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전자와 후자 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음절수의 다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음절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변화가 용이하다는 이른바 언어의 편의성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¹¹⁾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보이는 소음절인 3음절 가능동사와, 상대적으로 더딘 양상을 보이는 다음절인 4음절과 5음절 가능동사의 용례문을 몇 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1) 金鎔均(2014a) 「上方洒落本에 보이는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에 관한 고찰」 『比較日本學』 31, 漢陽大學校 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p.184

- (22) 直井の左衛門、中々其方は味^{あじ}をやるわいの。どふも言^いへぬ言^いへぬ。(御撰勸進帳、155-13)
- (23) 一ツ疋よく乗^のれたりとて、余の馬のきつと乗^のれるにあらず。(鸚鵡返文武二道、163-2)
- (24) 久し振^ぶりて出た者を、どこへ下^される物か。(名歌徳三舛玉垣、136下13)
- (25) モシ左四郎殿へ、半天を破^{やぶ}つたゞも帰^かれますまい。(お染久松色読販、193下10)
- (26) こう手繰^{たぐ}り寄せちやア、動^{うご}かせるものか(買飴紙尻野弄話、314-12)

위의 (22)(23)은 소음절인 3음절 가능동사의 용례문, (24)(25)는 다음절인 4음절 가능동사의 용례문, (26)은 다음절인 5음절 가능동사의 용례문이다.

다음으로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보이는 경향⑤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자와 후자 간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 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술한 <표1>과 <표3>을 근거로 한 분석 결과를 <표8>로 나타내 보기로 한다.

<표8> 江戸語자료에 있어서의 가능동사의 단순동사와 복합동사의 사용률(%)

자료 \ 동사	단순동사	복합동사
[A]江戸噺本 5종 (1772~1798)	12 (92.3)	1 (7.7)
[B]江戸歌舞伎 3종 (1773~1813)	16 (100)	0 (0.0)
[C]黄表紙 22종 (1775~1801)	16 (88.9)	2 (11.1)
합계	44 (93.6)	3 (6.4)

우선 <표8>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동사인 가능동사의 사용률(93.6%)은 복합동사인 가능동사의 사용률(6.4%)보다 단연 우위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역시 자료[A](92.3%), [B](100%), [C](88.9%)의 단순동사인 가능동사의 사용률은 자료[A](7.7%), [B](0.0%), [C](11.1%)의 복합동사인 가능동사의 사용률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경향⑤ 또한 인정되는 것으로 江戸洒落本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처럼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간에 있어서 보이는 遲速 차이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그 원인은 단순동사와 복합동사라는 동사 내부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음절수가

적은 단순동사가 구조적으로 음절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복합동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화가 용이하였을 것²⁾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가능동사에 있어서 음절수가 적은 소음절 동사가 다음 절 동사보다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미 전술한 경향④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종래 하단활용동사 「蹴る」가 4단화로의 변화 시 복합동사가 단순동사보다 잔존 경향이 강하다³⁾고 지적된 바 있는데, 이 또한 위와 같은 사실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보이는 단순동사인 가능동사와, 상대적으로 더딘 양상을 보이는 복합동사인 가능동사의 용례문을 몇 개 들어보기로 한다.

- (27) どふも言へぬ言へぬ。是では誰が見ても、常陸坊海尊とは見へぬ。(御撰勸進帳、226-3)
- (28) 一人がもてたとて、またほかのがもてるに非ず。(鸚鵡返文武二道、163-4)
- (29) そふいわしやつてハのミこめぬ。(楽牽頭、40下8)
- (30) なんと子供衆、これで飲み込ませう。(買飴紙尻野弄話、307-5)
- (31) なんと子供衆、飲み込めましたか。(上同、314-9)

위의 (27)(28)은 단순동사인 가능동사의 용례문, (29)(30)(31)은 복합동사인 가능동사의 용례문이다.

마지막으로 긍정표현과 부정표현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보이는 경향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자와 후자 간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 비교가 필요한데, 그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표9>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표9> 江戸語자료에 있어서의 가능동사의 긍정표현과 부정표현의 사용률(%)

자료 \ 표현	긍정표현	부정표현
[A]江戸噺本 5종 (1772~1798)	5 (38.5)	8 (61.5)
[B]江戸歌舞伎 3종 (1773~1813)	4 (25.0)	12 (75.0)
[C]黄表紙 22종 (1775~1801)	9 (50.0)	9 (50.0)
합계	18 (38.3)	29 (61.7)

먼저 <표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표현의 가능동사

12) 金銘均(2014b), 前掲書(3), p.65

13) 坂口至(2001) 『近世中期上方歌舞伎脚本資料に見えるナ変・下一段の四段化について』 『筑紫語学論叢・奥村三雄博士追悼記念論文集』、風間書房、p.292

사용률(61.7%)은 긍정표현의 가능동사 사용률(38.3%)보다 우위를 보인다. 내부적으로 살펴보아도 양 표현 간에 있어서 사용률(50.0%)이 같은 자료[C]를 제외하고는, 자료[A](61.5%)와 [B](75.0%)의 부정표현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은 자료[A](38.5%)와 [B](25.0%)의 긍정표현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보다 우위를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경향⑥ 역시 인정되는 것으로 江戸洒落本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처럼 긍정표현과 부정표현 간에 있어서 보이는 遲速 차이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이는 전자보다는 후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미연형의 대표적인 표현이 다름 아닌 부정표현인 점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연형의 진일보한 발달 양상이 부정표현의 가능동사 발달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데 기인하는 것¹⁴⁾으로 보인다. 가능동사에 있어서 미연형이 제 활용형에 비하여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은 전술한 경향③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참고로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보이는 부정표현인 가능동사와, 상대적으로 더딘 양상을 보이는 긍정표현인 가능동사의 용례문을 몇 개 들어보기로 한다.

(32) 唐^{から}様^{から}やら唐^{かゝ}流^{なつしや}とやら書^てれる人は 達^{たつしや}者^てぞう^な手^ななれど、ひと^つば^よめ^ませぬ。(鹿の子餅、364-12)

(33) おれも昔は女郎^か買^いいただが、今は百に四^よつの夜^よ鷹^{たか}も買^いへぬ。(遊妓寔卵角文字、197-17)

(34) エ、^を負^かい^ねへ^{さる}猿^{さる}唐^{とう}人^{にん}だ(お染久松色読販、191上3)

(35) どふだの、おふくろ、飯^いで^く食^くへ^ますか(聞上手、410-9)

(36) 此^こお^もみ^きは^よ四^も方^{かた}の^あか^と呑^のめ^ます(親敵討腹靴、57-3)

(37) それ見^みや^アが^れ。それ^で切^きる^物か。(無事志有意、461-10)

위의 (32)(33)(34)는 부정표현인 가능동사의 용례문, (35)(36)(37)은 긍정표현인 가능동사의 용례문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江戸 후기 특히 安永~文化期の 江戸語자료(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 30종을 대상으로 당시 江戸語에 나타나는 가능표현, 그 중에서도 가능동사에 주목하여 동일한, 당시 유력한 江戸語자료인 江戸洒落本과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14) 金銘均(2014a), 前掲書(11), pp.182-183

江戸語자료(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에 보이는 가능표현을 추출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비교의 관점(문체와 활용형, 음절수,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긍정표현과 부정표현)에서 遅速 차이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또한 그 원인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고찰 결과,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江戸語자료의 내부 간에 따른 遅速 차이가 보여 江戸洒落本> 江戸噺本> 黄表紙> 江戸歌舞伎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② 문체적인 면에서 보면 회화문> 지문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③ 활용형에서 보면 미연형> 연용형> 종지·연체형> 이연형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④ 음절수에서 보면 소음절 동사> 다음절 동사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⑤ 단순동사> 복합동사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⑥ 부정표현> 긍정표현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하여 江戸語자료(江戸噺本·江戸歌舞伎·黄表紙)에 있어서 가능동사는 다양한 형태 즉 문체, 활용형, 음절수,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긍정표현과 부정표현 간에 따라 여러 遅速 차이를 보이면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술한 사실 중에서 ②④⑤⑥은 당시 유력한 자료인 江戸洒落本과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반면에 ①③은 차이가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②④⑤⑥은 江戸洒落本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①③은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에서 당시 江戸語의 가능동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로 생각된다. 나아가 비슷한 시기의 동일한 자료라 할지라도 연구 대상에 따라서는 발달 양상이 다르고, 또한 그 결과가 달라 江戸語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자료를 통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된 점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아직 가능동사에 대하여 연구가 미진한 江戸전기를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통시적인 연구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해결 과제로 남겨진 연용형과 종지·연체형 간에 있어서 문체가 되는 遅速 차이의 실체 즉 그 결과가 우연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연용형이 종지·연체형보다 발달한 것인지를 규명하는 연구도 병행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 金鎔均(2004) 「江戸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에 관한 考察 -(さ)する와 (ら)るる 간의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22, 韓國日本文化學會, pp.35-54
- _____ (2009) 「江戸語 命令表現 「なされ」의 語尾 變化에 관한 考察」 『日語日文學』 43, 大韓日語日文學會, pp.5-18
- _____ (2013) 「三馬의 滑稽本에 나타나는 가능동사에 관한 高찰」 『比較日本學』 29, 漢陽大學校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pp.261-281
- _____ (2014a) 「上方洒落本에 보이는 可能동사의 발달 과정에 관한 高찰」 『比較日本學』 31, 漢陽大學校 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pp.167-190
- _____ (2014b) 「江戸洒落本에 나타나는 可能동사의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日本文化學報』 63, 韓國日本文化學會, pp.49-69
- _____ (2015) 「一九의 『東海道中膝栗毛』에 보이는 可能동사에 관한 高찰 -三馬의 滑稽本과 비교를 중심으로 -」 『日本文化學報』 66, 韓國日本文化學會, pp.29-46
- 青木博史(1996) 「可能動詞의 成立について」 『語文研究』 81, pp.45-56
- 小松壽雄(1985) 『江戸時代の国語・江戸語』、東京堂出版、pp.119-121
- 坂口至(2001) 「近世中期上方歌舞伎脚本資料に見えるナ変・下一段の四段化について」 『筑紫語学論叢・奥村三雄博士追悼記念論文集』、風間書房、pp.279-294
- 齋藤昭夫(1967) 「江戸語・東京語における可能表現の變遷について」 『言語と文芸』 54, pp.54-63
- 前田勇(1979) 『江戸語の辞典』、講談社、p.165

투 고 일 : 2015. 8. 31
심 사 일 : 2015. 9. 12
게재확정일 : 2015.10. 3